# <김홍섭 신임 울산지청장 대담 질문>
# -경상일보 인터뷰

질1>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다.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으로 5.1에 부임하여 부담도 크실텐데 그 소감은?

- 울산지역에 계시는 노동자 및 경영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역 고용노동문제 해결에 같이 노력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말씀처럼 울산은 국가경제의 중추이고 노동운동의 핵심지역입니다. 즉, 산업도시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이 있어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 저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노동조합, 경영단체, 울산시,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나 다양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여 큰 성과가 창출되도록 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질2> 코로나19로 인해 울산도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 업종별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실업자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 기업체들과 노동자(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은 있는지.

- 최근 발표되는 지역의 경제지표와 고용동향을 보면서 모두의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제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자동차 부문은 글로벌 산업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발주량 감소로 1분기 수주량이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하였으며, 석유화학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정유제품 소비감소로 1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주력업종의 경기 침체로 울산지역 4월 고용율은 62.0%로 전년 동월 대비 1.5%p 하락하고, 취업자 수도 1만7천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업자는 금년 4월까지 10%가량 증가하였고, 휴직자 규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이 향후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시와 협력하여 사업장의 고용유지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5월 현재까지 고용유지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2천개가 넘어 상당수 기업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5월 현재까지 4천6백건 이상이 신청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월50만원씩 2개월간 지원중입니다.
- 정부는 4.22에 1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학습지 방문강사・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93만명 목표, 1.5조원),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55만명, 3.6조원), 실직자・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30만명, 1.5조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주요 내용이고 조속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현장에서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3> 울산 동구 지역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추가적으로 설립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울산은 주민 수가 115만명에 이르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에는 1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법이 제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고용센터 추가 설치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인구수 등입니다.
- 현재 추가적인 고용센터 설립 기준에는 울산지역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 가능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4> 울산은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산재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줄어들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가.

-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철저히 확충해야 하고, 수립된 안전작업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최근 조선업종 작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확실한 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모두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설 투자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 사안입니다.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장의 근로자 안전을 위해 원청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조선업종 등의 작업 공정에서 하도급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원청이 책임지고 모든 근로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질5> 마지막으로 울산의 기업체 관계자, 노동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금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의 일자리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이고, 경영자에게 절실한 것은 경제 안정입니다. 일자리 안정과 경제 안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은 국가경제 산업의 중추이고 노동운동의 핵심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노사가 모두 하루빨리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